

定住體系에 관한 比較文化的 解釋을 통하여 본 건축이론에 관한 연구

李相海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I. 서론

정주체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한 보금 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의 건축적인 반영이다. 정주체계는 크게 정주형태와 그 내용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이를 통하여 건축이론과 원리, 그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주거와 연관되는 건축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정주체계에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크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지역과 문화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서로 다르게 하는 원동력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서로 다른 건축문화에서 서로 다른 건축을 하는 방식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정주체계를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연관된 사항을 건축이론적으로 해석하여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항과 연관되는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실례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건축의 많은 요소와 형태를 건축하는 동기, 과정, 방법, 내용, 가치관, 세계관 등 內的인 측면에서 정주형태와 주거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해보려는 시도이다. 특히 건축 중에서도 주거

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들의 건축을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II. 본론

原初形 주거내용이나 정주형태가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그들은 원초형주거와 연관된 정주체계가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방법, 가치체계, 세계관, 사회제도 등과 어떻게 상관하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를 선구적으로 개척을 한 사람으로 미국의 모르건(Lewis Henry Morgan)을 들 수 있다¹⁾. 모르건은 일찌기 건축과 사회제도사이의 심층적인 관계를 미국 원주민들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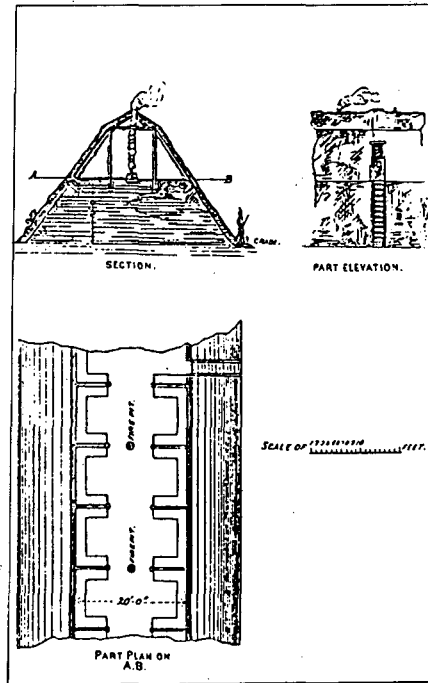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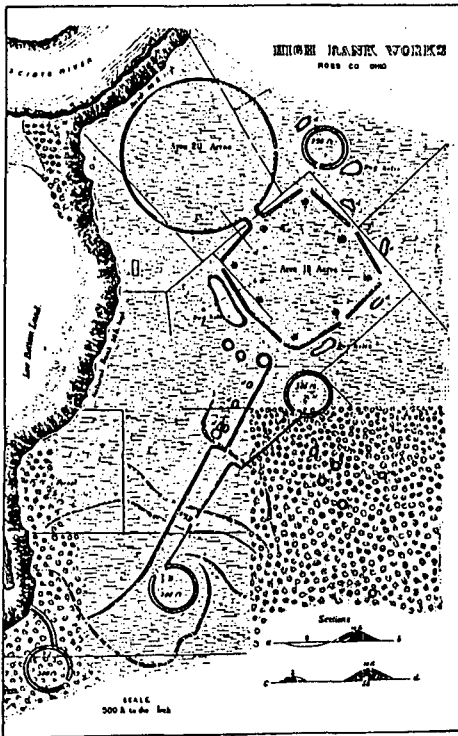
1) Morgan의 생애에 대하여는 Carl Resek의 *Lewis Henry Morgan, American Schola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에 잘 나타나 있다.

하여 1881년 발간된 그의 『미국원주민들의 주거와 주거생활』 (Houses and House-Life of the American Aborigines)에 발표하였다²⁾.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하이뱅크 푸에블로 (High-Bank Pueblo) 인디언들의 유구를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한 부분이다³⁾. 이 유구는 도면 1.에서 볼 수 있듯이 넓게 트인 중정을 둘러싼 배치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를 통하여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주거와 주거생활」은 사회제도와 상관관계가 있

다는 해석을 하였다⁴⁾. 모르건의 개척적인 연구 이후 정주체계에 관한 연구는 그 후 여러 학자에 의하여 관심 분야가 넓혀지며 이루어지고 있다.

1. 실례 1 : 미국 서남부지방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정주체계

우리는 흔히 건축의 형태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그 형태는 근본적으로 자연환경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도면 1. 오하이오주 하이뱅크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주거지 배치도 및 모르건이 복원한 주거평면과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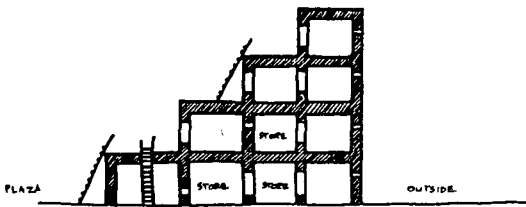
2) Morgan의 *Houses and House-Life of the American Aborigines*는 본래 1877년 발행된 그의 *Ancient Society* 마지막 章인 제5장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그 후 1881년에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65년 판을 참고하였다.

3) Morgan, 앞의 책, pp.224-251.

4) Morgan은 이를 토지소유제와 연관되는 共產體의 생활과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해석하였다. 모르건이 이야기하는 공산체적인 생활(communism in living)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그는 핵가족 보다 그 규모가 큰 지역공동체와 비슷한 의미로 이 용어를 쓴다. 모르건이 추정, 해석

첫번째로 든 실례는 건축형태, 즉 정주형태는 근본적으로 자연환경에 의해서만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 예를 미국 서남부 지방의 아메리카 인디언인 푸에블로 (Pueblo) 족과 나바호(Navajo) 족의 주거에서 찾아 살펴보았다⁵⁾.

일반적으로 푸에블로족의 주거는 “푸에블로”라고 부르며, 나바호족의 주거는 “호간”(Hoga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푸에블로족의 하나인 호피족과 나바호족은 건축재료를 얻을 수 있는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주거인 푸에블로와 호간은 서로 다른 건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푸에블로는 점토를 햇볕에 굳혀 만든 아도우비 벽돌(adobe)이나 돌로 만든 두터운 벽들로 방들을 좌우, 전후로 다닥다닥 붙여 만든 몇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그 외형은 평지붕과 테라스로 구성된 일종의 아파트식 주거형식이다.



도면 2 푸에블로 주거 일반형 단면도

(출처: Amos Rapoport의 “The Pueblo and the Hogan” Shelter and Society, Paul Oliver 편집, Frederick A. Praeger, Pub.,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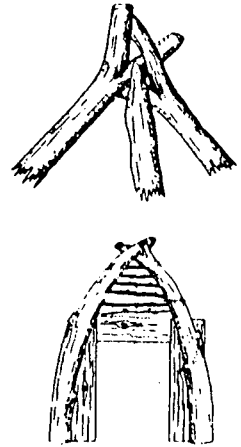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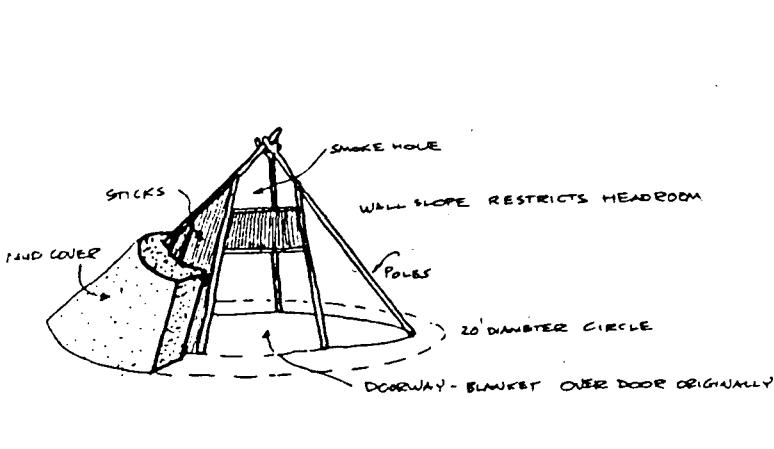
한 내용중에 일부는 오늘날 오류가 발견된 부분도 있다. 하이뱅크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유구에서 주거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 구조는 인디언들의 墳墓用 구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늘날 판명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Morgan의 연구가 나온 지 100년에 가까운 1960년대에 있는 발굴작업에서 밝혀졌다.

5) Pueblo족과 Navajo족의 건축에 관한 비교문화적인 연구는 Amos Rapoport의 “The Pueblo and the Hogan” (Shelter and Society, ed. by Paul Oliver, Frederick A. Praeger, Pub., 1969, pp.66-79)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Rapoport의 이 논문을 참고하였다.

나바호족의 주거인 호간은 본래 圓錐形으로, 三脚形의 골조에 통나무를 걸치고 그 위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통나무, 잡목을 엮고 잔디나 진흙으로 덮어 만든 것으로서, 중심에 화덕을 설치하여 만든 겨울철을 나기 위한 것과 이동식 천막을 사용하여 만든 여름철을 나기 위한 것이 있다. 三脚形의 골조는 도면 3.에서 보듯이 실제 5개의 통나무로 세워지는데, 그 중 2개는 동쪽에 세워 그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만들고, 나머지 3개는 정북, 정남, 정서 등 세 방위에 비스듬히 세워 꼭대기를 서로 걸쳐 포크 형태로 잡아 매었는데(forked-stick hogan) 평면은 원형에 가깝다.

이러한 정주체계의 차이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하여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호피족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지붕으로 된 푸에블로의 옥상 테라스는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을 위하여 간막이로 구분되지 않으며 광장의 성격을 갖는 공동의 장소로 사용된다. 또한 각 가정은 동일한 실내 구성형식과 크기의 주거를 가지고 있다. 즉 호피족의 푸에블로는 공동의 장소를 바탕으로 주거가 형성되어 있다. 호피족과는 대조적으로 나바호족의 각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개체성이 존중되고 어린이들도 사유물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공유하는 물건을 제외하고 사회, 경제단위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푸에블로와는 달리 나바호족의 호간은 비록 집단으로 주거가 형성되더라도 개별주거가 단위가 되어 전체가 형성된다.

이를 요약하면 푸에블로에서는 공공의 장소인 테라스, 성스러운 공간인 키바(Kiva) 등이 공유 공간으로 중요성을 지니며, 전체 주거형식은 일종의 아파트와 같이 밀집된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호간에서는 각 가족단위의 주거는 독립된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전체 속의 부분을 형성하며 전체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푸에블로는 키바를 중심으로 하여 한 곳으로 모여지는 求心的인 정주형태로, 호간은 개체가 떨어져 있는 遠心的인 정주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⁶⁾.



도면 3. 나바호족의 Forked-stick Hogan 구조도

(출처 : Amos Rapoport의 "The Pueblo and the Hogan" 와 Stephen Jett, *Navajo Architectur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1)

2. 실례 2 : 인도네시아 티모르섬 원주민들의 주거구조와 주거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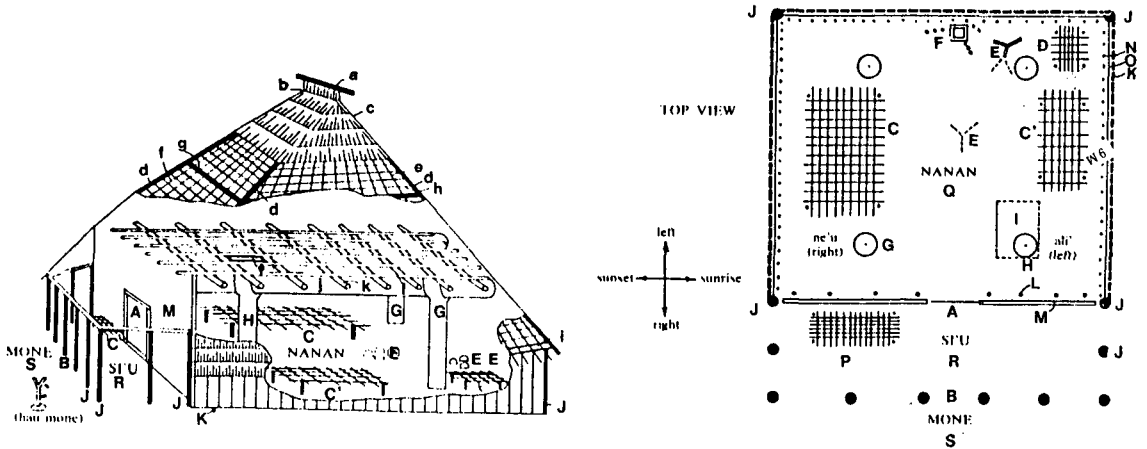
주거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주거와 연관된 세계관과 사회문화 내용을 전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인도네시아 티모르(Timor)섬에 사는 아토니(Atoni)족의 주거에서 볼 수 있다.⁷⁾

6) 수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도 Hopi족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면서 짜나가는데, Navajo족은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향하면서 짜나간다. 옥수수 경작에 있어서도 Navajo족은 가운데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밖으로 뻗어나가며 꼴을 파는데, Hopi족은 이와 반대방향으로 옥수수를 심어나간다.

7) Atoni족의 주거에 관한 내용은 Clark E. Cunningham의 "Order in the Atoni House"(Rodney Needham 편집, *Right and Lef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를 참조하였다. Cunningham은 Timor섬의 Atoni족 가운데 Amarasi 領地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에 관하여 현지답사한 연구를 하였다. 이에 대한 고찰은 李熙奉, 「韓國建築에 記號學的 構造의 適用에 關한 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78), pp. 60-65에도 나온다.

아토니족의 주거는 도면 4.의 J, G, F, C', E, C 에서 보듯이 鷄子柱, 母柱, 물항아리, 寢床, 화덕, 大壇 등이 중요요소가 되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각 구성요소는 네개가 기본단위가 되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도면 5.의 (1-4)에 표시된 네 정방위와 도면 5.의 (5-8)에 표시된 것과 같이 네개의 鷄子柱에 의한 공간분할에서도 볼 수 있다. 계자주는 도면 4.의 평면도 J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계자주 위에 지붕이 얹혀진다. 특히 12개의 계자주 가운데 4개는 내부공간(도면 4.의 Q, NANAN)을, 나머지 8개는 외부공간(도면 4.의 R, SI'U)을 형성한다. 특히 그 중에서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도면 5.의 (5-8) 4개의 계자주는 용마루에서 내려오는 부재(도면 4.의 d)의 힘을 받는 역할을 하는 중요 구조체이다. 네개가 기본단위가 되어 이루어진 주거내용은 내부공간 사용과 연관이 있는 가구집기들인 물항아리, 침상, 출입문, 大壇 등의 배열에서도 볼 수 있다. 도면 4.의 평면도에 보이는 이들의 내부공간상의 위치는 도면 5.의 (9-12)로 표시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집약하면 아토니족의 정주체계는 求心軸線상의 같은 중심선상에서 서로 교차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와 X형태의 구조내용과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내용으로 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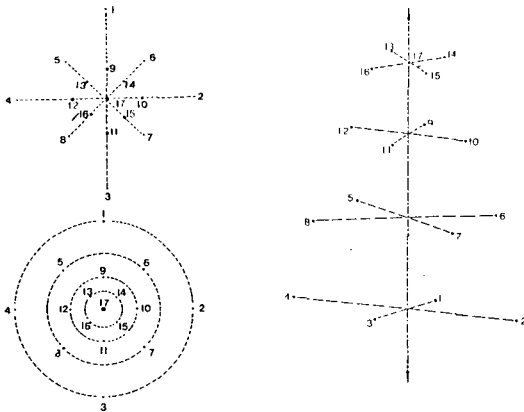


도면 4. 아토니족의 주거 내용도.

- | | |
|--|--|
| <p>a : fuf manas(sun cranium)
 b : fuf ai(fire cranium)
 c : hun(grass, thatch roof)
 d : suaf bidjaekase(horse spar)
 e : suaf benaf(spar)
 F : suaf susuf(susuf spar)
 g : aka'nunu(pillow)
 h : tak pani(cross-spar)
 i : tnat oe('hold water' cross-spars)
 J : atbat (beam)
 K : kranit (cross-beam)
 l : nesa'(rafter)
 A : eno (door)
 B : toi(entrance)
 C : harak ko'u(great platform)
 C' : harak tupa'(sleeping platform)
 D : harak mamba'at(agreement platform, serving platform)</p> | <p>E : tunaf(hearth)
 (E) : tunaf(hearth, alternate place)
 F : nai oe teke(fixed water jar)
 G : ni ainaf(mother post)
 H : ni ainaf(nakan)(mother post, head)
 I : toi(entrance, attic)
 J : ni manu(chicken post)
 K : haef(foot)
 L : haef mese(first foot)
 M : piku(wall)
 N : rusi(inner wall post)
 O : rupit(wall slat)
 P : harak(platform)
 Q : NANAN(inside; center, inner section)
 R : SI'U(elbow, outer section)
 S : MONE(outside; male, yard)</p> |
|--|--|

데, 그 모양은 도면 5.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다. 도면 5.에서 보듯이 +, X형태는 동심원을 이루며 서로 교차, 반복되며 나타나는데 이는 곧 아토니족이 주거와 연관된 방위를 넷으로 분할하여 인식하는 세계관과 통한다.
 아토니족의 주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색으로, 하나를 반으로 지속적으로 분할해가며 건축공간과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예

로서 한 지붕 아래 있는 집 전체공간은 내부공간(NANAN)과 외부공간(SI'U)으로 분할되고 이들은 각각 다시 반으로 분할된다. 이러한 분할은 주거가 내부와 외부, 오른쪽과 왼쪽부분이 생기도록 하고 다시 이러한 것들은 전면과 후면으로 나누어 각 구역이 형성되도록 한다. 그리고 내부공간은 다시 거기에 부수된 요소들로 분할된다.
 내부공간에 있어서 상위에 속하는 오른쪽은 대



도면5 아토니족 주거의 방위와 공간구성 개념도
 (1-4: 4정방위; 5-8: 鷄子柱; 9-12: 물항아리, 침상, 출입문, 大壇; 13-16: 母柱; 17: 화덕)

단, 왼쪽은 침상이 놓이는 공간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식사를, 왼쪽은 식사준비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지붕 구조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의 마룻대는 sun cranium(도면 4.의 a)으로 불리며 그 아래에 자리한 fire cranium(도면 4.의 b)과 한 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맨 가장자리에 있는 보 hold-water(도면 4.의 b)와는 대응관계를 이룬다. 이는 마치 주거 내부공간에서 화덕과 물항아리가 왼쪽과 후면에 같이 놓여지는 내용과도 통한다. 그리고 지붕을 받치는 네개의 구조물인 horse spar(도면 4.의 d)는 집 평면의 네 모서리 기둥인 鷄子柱에 놓이는데 이들은 각각 남성, 여성을 상징한다. 이와같이 아토니족의 주거는 내부/외부, 큰 것/작은 것, 오른쪽/왼쪽, 남성/여성, 불/물 등 對待的인 상관관계를 이루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벗어나게 배치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3. 실례 3 : 타이 북부지방 사람들의 정주체계

주거구조와 주거내용뿐 아니라 주거배치와 마을 공간구성 방식까지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여 구성된 예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는 타이 북부지방에서 그 실례를 살펴보도록 한

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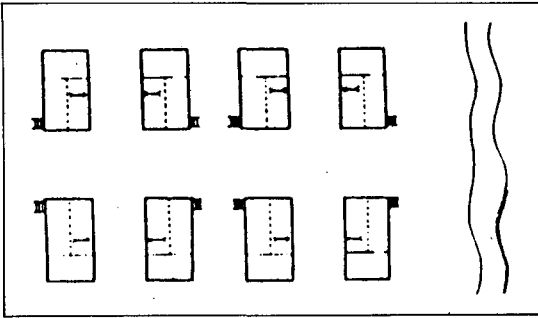
타이의 많은 부락과 도시는 주로 큰 강이나 강줄기를 따라 帶狀을 이루는 線形배치를 하고 있다⁹⁾. 이러한 마을 공간구조에는 타이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向과 方位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그들은 마을 주변에 흐르는 강이나 도로의 방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집의 배치가 강이나 도로의 흐름 방향과 같으면吉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려와 함께 각 주거의 향은 이웃하는 집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마을 전체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로서 루앙 프라방(Louang Prabang) 지역의 거의 모든 집들은 건물의 짧은 변인 박공면이 도로에 면하게 앉아 있고, 출입구는 집의 정면 즉 긴변에 나 있다. 이들은 도로와 연관시켜 각 주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면서 모든 집들은 집 정면을 남의 집 뒷면을 향하지 않게 하여 정면은 정면끼리, 뒷면은 뒷면끼리 향하도록 앉힌다. 그리고 각 집의 뒷면에는 주로 부엌이 있는데, 이 뒷면은 뒷집의 뒷면과 마주보게 앉아 있다. 또한 그들은 두 채의 집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앉히지 않는다. 이는 집의 開口部를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타이사람들은 사악한 기운은 직선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치원칙은 이 지방 사람들이 집 내부 공간을 이용하는 관습을 분석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잠을 잘 때 그들은 용마루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누워서 잔다. 또한 그들은 머리는 발보

8) 본 연구에서 살핀 타이 북부지방의 주거와 마을 공간 구성에 관한 내용은 Sophie Clement-Charpentier의 "The Permanance of Rural Settlements in Thai Towns" (*Dwellings, Settlements and Tradition: Cross-Cultural Perspective*, ed. by Jean-Paul Bourdier and Nezar Alsayyad.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pp.135-159)를 참조 하였다.

9) 강을 교통수단으로 하며 생업을 하지 않는 타이 마을들 중에는 선형배치가 아닌 것도 있다. 하지만 타이 북부지방의 거의 모든 마을이나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다.



도면6 루앙 프라방 지방의 라오(Lao) 주거내부
(사람이 누웠을 때 이웃하는 집 사람들이 머리를 두는 방향으로 머리를, 발을 두는 방향으로 발을 두도록 평면이 구성되어 있다.)

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런 이유로 이웃집 사람들의 머리쪽으로 발을 향하고 자면 무례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눕거나 잠을 잘 때는 반드시 이웃집 사람들이 머리를 두는 방향으로 머리를, 발이 있는 방향으로 발을 두고 누워 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면 6.). 이러한 규칙은 이웃하는 집들을 여러 채 같이 지을때 집들의 배치가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나아가 전체 마을의 공간구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건축공간 이용과 마을 배치계획에는 관습, 세계관 등에 내재하는 내용이 건축공간구조와 마을배치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마을배치의 의미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마을배치나 주거의 물리적인 형상을 서술하기 위하여는 내재하는 문화구조를 탐지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4. 사례 4 : 남부 인도지방 사람들의 정주체계

남부 인도의 타밀 나두(Tamil Nadu)족은 우주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 힘이 나오고 있는데, 이 힘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람의 몸은 반드시 실제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연관되게 공간상의 합당한 방위에 배열되어야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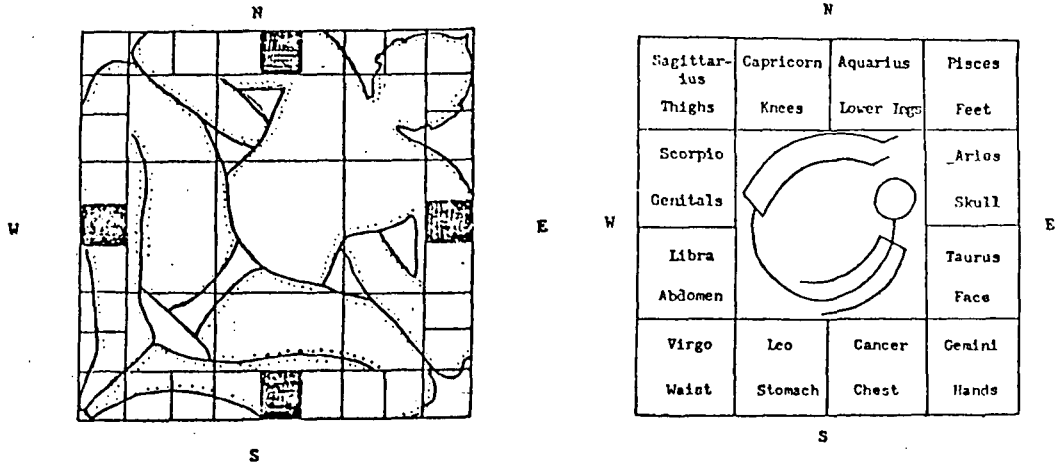
믿는다¹⁰⁾. 특히 그들은 동쪽은 가장 상서로운 힘이 발산되어 나오는 곳, 서쪽은 그와 반대되는 곳으로 믿는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집의 정문을 반드시 동쪽을 향하여 나게 한다. 동쪽이吉利하다고 믿는 것은 아침에 갓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이 가장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믿기 때문이다¹¹⁾.

또한 타밀족은 외부공간에 존재하는 힘은 우주공간내의 아홉가지 존재인 육안으로 보이는 다섯개의 行星, 태양, 달 그리고 일식, 월식 때 태양과 달의 궤도가 교차되는 두 結點(node) 등이 길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사람들의 길흉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복잡한 방위나 지점들로 부터 나오는 힘이 적게 작용하는 곳에 신체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불길한 것을 피하는 방법은 그 직선의 방위에서 자신의 몸의 위치가 벗어나면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聖俗, 吉凶에 관한 관념은 타밀족의 천문사상 및 민속신앙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남부 인도지역 민속신앙에는 바추(Vastu)라고 불리는 地神이 있는데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이 神을 해치지 않게 기초를 파야한다고 믿으며, 건물을 공사하기에 앞서 바추神을 위한 의식을 행한다. 그들은 이 바추신은 땅 속에서 등을 위로 하여 정사각형 공간을 꼭 채운 형상으로 엮여 있는데, 모든 사원은 바추신을 다치지 않게

10) 남부 인도의 Tamil Nadu족의 주거문화에 관한 내용은 Brenda A. F. Beck의 "The Symbolic merger of body, space and cosmos in Hindu Tamil Nadu",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NS), vol. 10, no. 2 (1976), pp.213-243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B. Beck의 연구는 1972년 Tamil Nadu지방의 Coimbatore지역 현지답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1) Tamil족이 아침에 갓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을 이롭다고 믿는 생각은 그들에게 동쪽은 기원이나 시점이 라는 뜻을, 서쪽은 이와 대비되는 뜻을 갖는 것으로 만들었다. B. Beck에 의하면 일상생활 중에서도 중대한 일을 행할 때, Tamil Nadu족은 동향을 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祠廟들도 동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어떤 것들은日出할 때의 태양이 바로 至聖所에 비치도록 배치되었다고 한다. B. Beck, 위의 논문, p. 215.



도면 7. 성스러운 정방형의 평면에 꼭차에 있는 바후神과 방위별 12성좌의 위치와 인체와의 상관관계도

하며 그 위에 세워야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도면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후신은 머리를 동북間方에 두고 누워 있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星宿이 한달동안 天空을 운행할 때 매일 지나는 지점을 표시한다. 지상에서 의례를 행할 때도 이 성숙은 특별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각각의 위치에 神格이 부여되어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儀禮공간인 중정을 중심으로 네 변에는 성숙의 위치가 마련되어 이름이 붙여 있는데, 이러한 의례와 상관된 성숙의 배치는 힌두사원건축 교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¹²⁾.

사원건축과 星宿과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도면 7.에서 보듯이 타밀족에게 천문과 바후신의 방위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인체 형상도 천상의 기본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체의 기본형태도 바후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같은 정방형인 것으로 타밀족은 믿고 있다. 그들은 바후신이 정방형에 꼭 들어맞게 위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체도 정방형을 가진 가장 완전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인체는 神殿과 같은 小宇宙이고 동시에 이 소유주는 우주적인 힘을 받아들일 때 가장

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¹³⁾.

이상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사람의 몸과 우주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 등 물리적인 구조물에도 그러한 상관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람의 몸과 우주와의 상관관계는 하나의 공간구조에 합일될 때 가장 완전한 해결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세계관을 완성시킬 이상적인 공간형태는 정방형의 구조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실례 5 : 동아시아의 풍수지리사상과 정주체계

風水地理思想은 氣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어 궁극적으로 천지 음양 二氣가 조화하는 지점인 穴을 구하여 그 氣가 어떻게 산 사람에게 吉福을 생하게 할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氣의 개념으로 풍수지리사상의 본질이 설명된다. 풍수의 본질은 生氣와 그의 感應에 있다. 죽은 사람은 穴에서 생기를 받아 후손인 산 사람에게 생기가

12) 성숙이 사원건축의 평면 둘레로 둘러가며 배치되어 있는 것에 관한 설명은 Stella Kramrisch, *The Hindu Temple*, vol. 1, Calcutta University Press, 1946, p. 34에 잘 나타나 있다.

13) 남부 인도사람들은 머리를 동북 간방에 두는 것이 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Beck에 의하면 이는 Tamil 지방의 많은 呪術인들이 우주적인 힘의 방향과 연관시켜 액플이하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한다. B. Beck, 위의 논문, p. 217.



도면 8. 풍수산국도

감응되게 하고, 마찬가지로 산 사람은 그가 거주하는 집을 통하여 생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풍수지리사상의 이러한 기본내용은 氣의 개념 및 天人相關說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자연을 해석, 이해하는 기본 개념이며, 동시에 자연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를 합—시켜 보려는 세계관이기도 하다¹⁴⁾. 이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자연과 조화해야 한다는 차원 이상의 형이상학적인 우주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를 이루게 하는 힘이 곧 氣에 내재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특히 陽宅풍수에는 이상적인 거주환경과 공간의 조영은 건축물과 주변환경을 포함한 고도의 정신적인 가치까지 지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陽宅論은 양택 즉 집의 배치와 간잡이, 곧 평면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룬 이론이다.¹⁵⁾ 양

택론은 방위를 東四, 西四 방위로 양분하고 이것을 五行에 배분해서 양택을 간잡이하고 있다.

또한 「民宅三要」의 三要論條에 나오는 이른바 양택삼요에 의한 양택론도 동아시아 전통주거의 간잡이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¹⁶⁾ 양택삼요란 門, 主, 灶를 말한다. 門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由之路), 主는 거처하는 곳이고(居之所), 灶는 먹는 물건이 있는 곳이다.(食之方) 이 三要는 각각에 배합된 五行이相生하는 곳에 위치할 때 그 양택은吉한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삼요의 각 위치는 실지로 각 삼요의 開口部 위치를 말한다. 풍수의 본질은 氣의 감응에 있으므로, 양택에서는 이 개구부를 통하여 기를 감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陽宅三要에 配合된 五行이相生하는 원리에 바탕을 두어 양택을 東四宅, 西四宅으로 구분하여 그 길흉을 판단하기도 한다. 동서택이란 삼요가 坎, 離, 震, 巽(북, 남, 동, 동남) 방위에 속하는 양택을 말하고, 서서택은 삼요가 乾, 坤, 艮, 兌(서북, 서남, 동북, 서) 방위에 속하는 양택을 칭한다. 양택의 東西四宅論은 음양 오행의 이치와 연결되어 구성되었는데, 이 경우 동서서택에는, 각각 그 命數에 해당하는, 즉 東西命

14) 천인상관설은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vol. 2, pp. 297-303에 잘 설명되어 있고, 자연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를 합일시키려는 천인합일 사상은 「周禮」 上記에 「天地之所交會 四季之所由生 風雨之所互成 陰陽之所相會」로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5) 풍수지리사상의 양택론에 나오는 집의 배치와 간잡이에 대해서는 金鴻植, 李海成, 「19세기 양택론에 나타난 살림집의 간잡이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권 제6호, 1988년 12월, pp. 93-106)을 참조할 것.

16) 양택삼요에 의한 양택론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李相海, 「『民宅三要』를 통하여 본 조선양택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권 제6호, 1988년 12

과 西四命, 사람이 거처하여야 한다¹⁷⁾.

이와 같이 양택풍수에서 말하는 어떤 대지에 어떤 命數를 가진 사람이 어떤 방위에 거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은 대지와 거주자와의 관계를 음양오행의 원리상 일체가 되게 하려는 건축계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풍수지리사상은 건축의 형태, 기능,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주거를 어떻게 형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체계를 보여주는 방법론이다.

6. 실례 6 :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주거생활과 정주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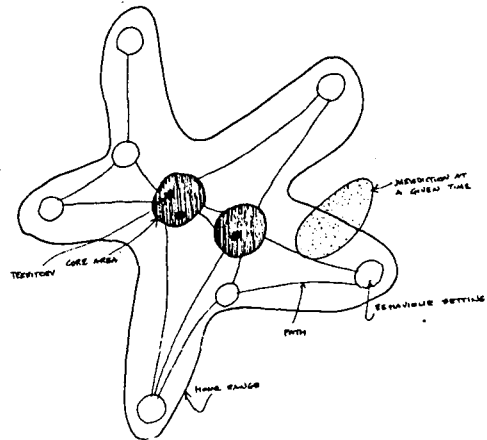
주거생활과 연관되는 장소와 그 영역을 정의하는 것으로는 물리적인 구조물 이외의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예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주거생활 내용에서 볼 수 있다¹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정주체계는 건축이란 구조물을 만드는 행위이외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정주방식을 보면 쉼터(shelter)라는 것은 건축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본 것이고, 이 물리적인 구조물 이외의 요인들도 거주자들에게 건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각 종족별로 그들의 영역 안에서만 이동하며 생활하지, 다른 종족의 영역까지 침범, 이동하며 생활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은 어느 장소가 그들의 삶과 연관된 상징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으면 이를 자연환경과 상관시켜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물리적인 형상보다 상징적인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자연현상 뒤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¹⁹⁾.

예로서 그들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동할 때 어느 특정한 길을 따라 이동하며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옮겨 사는데, 관념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길이나 장소를 다른 길이나 장소보다 훨씬 더 신성하게 생각한다. 즉 그들은 그들이 사는 영역안에는 이와같이 質적으로 格이 다른 장소가 여러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장소를 따라 이동하는 어느 특정한 길이 나게 되고, 또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그들의 거주지를 정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인식하는 장소의 상징적인 내용은 본질적으로 “저쪽 땅”이 아닌 “이쪽 땅”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영역성에 속하는 개념이다. 그들이 정주생활과 연관되는 장소성과 상징성을 창출하는 행위는 랑거 (Suzanne Langer)가 이야기하듯이 상징성을 이용하여 종족이 살아갈 영역을 구현하려고 하는 개념과 통한다²⁰⁾.



도면9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주거 범위 다이어그램

월, pp. 107-116)을 참조할 것.
 17) 양택삼요예 의한 양택론과 연관된 東西四宅論에 대해서는 이상해, 위의 논문을 참조할 것.
 18)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주거생활과 장소 정의에 관한 내용은 Amos Rapoport, "Australian Aborigines and the Definition of Place", (Shelter, Sign & Symbol, ed. by Paul Oliver, The Overlook Press, 1980, pp. 38-51)을 참조하였다.

19) 물리적인 형상보다 상징적인 내용을, 눈에 보이는 것 보다는 자연현상뒤의 보이지않는 힘을 더 중요하게 믿는 생각은 Mircea Eliade가 *The Sacred and the Profane* (Harper and Row, New York, 1961)에서 이야기하는 원시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의 세계는 곧 성스러운 세계이고, 세속의 세계는 그러하지 않은 세계라는 견해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20) Suzanne Langer, *Feeling and Form*, Charles Scribner Sons, New York, 1953, p. 27.

이상 살펴 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정주 체계에서 건축에는 쉼터라는 기능을 갖지 않는 것도 건축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은 실제로 물리적인 내용과 상징적인 내용을 모두 갖출 때 진정한 의미의 건축적인 기능을 갖게된다고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중에서 상징적인 기능에 속하는 것은 물리적인 구조물을 통하지 않고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징성은 곧 장소성과 영역성을 설정하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이를 자연(landscape) 속에서 이루고 있다.

Ⅲ. 종합 정리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

실례 1.로 든 미국 서남부지방의 아메리카 인디언인 푸에블로족과 나바호족의 주거에서 건축 형태는 근본적으로 자연환경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들 종족사이의 세계관과 문화의 차이가 정주체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들이 같은 자연환경조건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그들의 주거를 형성하였는가라는 문제와 크게 연관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푸에블로주거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를 호프(Benjamin Lee Whorf)의 호피족 언어에 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호프는 호피족 언어를 통하여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것을 분석, 해석하였다²¹⁾. 호프에 의하면 호피족이 사용하는 건축과 연관된 단어들은 모두 塊體로 이루어진 물질에 한한다. 호피족에게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

거나 그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대상물을 지칭하기 위한 단어는 있어도 텅 빈 공간을 지칭하는 단어는 없다. 호피족의 언어에는 건물의 여러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는 있으면서 삼차원 세계를 뜻하는 “空間”이나 “室內”를 표현하는 단어는 없다. 호피족에게 공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안”(inner)이라는 뜻만 지니고 있고, 이는 사물 즉 대상물하고만 연관되어 있다고 호프는 해석한다. 호피족에게 “室”(room)을 뜻하는 단어는 건물의 부분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들과는 다르다. 예로서 “나의 방”이라는 말은 호피족 언어에는 없고 단지 장소를 지시하는 단어만 있다.

이를 푸에블로에 나타난 건축적인 특징과 연관시켜 보면, 푸에블로는 여러 건축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가 껍체와 같은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다. 텅빈 외부공간이나 중정같은 것이 건축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해결한 기법은 푸에블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푸에블로와 호간이 왜 서로 다른 정주체계와 건축적인 특성을 갖는가를 해명하는 좋은 단서가 된다.

실례 2.로 든 아토니족의 주거에서는 집은 전수되어 온 세계관이 주거 속에 포함되어 어떤 질서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질서란 일정한 패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주거내용을 말한다. 아토니족의 주거는 방위와 장소에 바탕을 두고 주거 구성요소별로 네개의 단위가 서로 교차하며 십자형태나 동심원 형태를 이루며 주거전체가 조화로운 질서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실례 3.으로 든 타이 북부지방 사람들의 정주체계를 통하여는 마을배치나 주거내용에 대한 서술은 내재하는 문화구조를 탐지해내므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내용이 탐지되면 정주체계를 지배하는 패턴을 읽을 수 있고, 이 패턴이 파악되면 그러한 건축에 내재하는 질서를 읽을 수 있다.

실례 4.로 논의한 남부 인도 타밀족의 주거에서는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신비스러운 여러가지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사람의 몸이 주거공간에 놓이는 위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밀족이 聖俗,吉凶은 사람의 몸 각 부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것은 바추라고 불리는

21) Benjamin Lee Whorf의 Hopi족 언어에 관한 연구는 Benjamin Lee Whorf, *Language, Thought & Reality* (MIT Press, 1956, pp.199-206), “Linguistic factors in the terminology of Hopi architecture”에 있다.

地神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타밀족의 주거형태와 주거내용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프록터 (R. Chelvadurai-Proctor) 에 의해서 된 것이 있다. 특히 그는 타밀족이 아주 옛날부터 주거지, 마을, 도시, 도로 등의 입지를 선정하거나 건설할 때 신비스러운 의례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내용에 관해 연구하였다.²²⁾

프록터의 연구에 의하면 타밀족이 집을 지을 때는 시트피(Sitpi)라고 불리는 전문가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는 마치 동아시아의 風水師에 해당하는 전문가이다. 시트피는 인도경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수학, 회화등에 관하여도 알아야 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도 원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건축할 대지를 선정하여 주기도 하고 건물이 들어설 자리와 좌향을 정하여 주기도 한다. 이 때 그 대지의 적합성은 토질의 냄새, 맛, 색, 그리고 조밀도 등으로 판단한다. 이외에도 몇가지의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대지가 선정되면 시트피는 여러 요인들을 관찰하여 좌향을 정하고 건물과 중요한 방들의 배치를 결정해준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대지는 인도 전통에 의하면 그 땅에는 바추 푸루사(Vastu Purusa)라고 불리는 어떤 정신적인 힘을 가진 신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생각한다.

실례 5.에서는 동아시아의 풍수지리사상은 정주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풍수지리사상의 기본원리와 방법은 天上의 模型을 地上에 재현하려는 天人相關說과 天人合一思想으로 요약,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양택론에서 집의 배치와 간접이, 그리고 「民宅三要」의 門, 主, 灶 三要論은 양택을 東四, 西四 방위로 양분하고 이것을 오행에 배합하여 주거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 양택론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주거에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론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실례 6.으로 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주거생활에서는 물리적인 구조물 이외의 사항도 건축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주거는 물리적인 은신처를 제공하는 기능과 문화내용이 반영된 상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 둘 모두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첫번째 기능만이 있고, 두번째의 기능은 건축물이 아닌 다른 것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도 건축의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그들이 사는 땅, 즉 영역을 구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주체계는 눈으로 보이는 형태적인 특성이나 공간적인 특성뿐만아니라 그속에 내재하는 것까지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정주체계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거를 마련하고, 그 주거는 어떤 식으로 땅위에 세워지느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위에 세워진 정주체계는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슐츠(Christian Norberg-Schulz)는 사람의 삶은 어느 장소에서나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정말 하나의 우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우주란 곧 의미 있는 공간체계를 말한다 주장한다. 슴츠의 주장에 의하면 물리적인 환경은 상징적인 내용으로 충전되어 있을 때 주거환경은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한다.²³⁾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위하여 특정한 터를 잡고 그들 방식으로 정주체계를 형성하는 이유는 그 터가 주변과 구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슴츠는 또한 건축은 자연현상, 사회현상, 정신적인 현상에서 도출한 실존적 의미를 공간형식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개념으로는 만족스럽게 묘사될 수 없고 의미로운 것이나 상징적인 형식으로 이해되

22) R. Chelvadurai-Proctor의 논문은 "Some Rules and Precept among Tamils for Construction Houses, Villages, Towns and Cities during the Medieval Age" (*Journal of Royal Asiatic Society (Ceylon)*, Vol. XXX, no. 80, 1927, pp. 337-360)를 참조하였다.

23) Christian Norberg-Schulz, George Baird and Charles Jenks (eds.), *Meaning in Architecture*, London: Barrie & Jenkins, 1969, p. 226.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이러한 상징은 어떤 개념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랑거는 이야기한다. 즉 상징은 의사전달의 본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문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상징이 갖는 의사전달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회구조와 정주체계 사이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행위를 하고 거기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세계관에 상관이 있는 내용이 있다. 즉 정주체계는 그 사회가 지닌 非物質的이고 非空間的이고 非時間的인 속성을 지닌 가치, 의미, 규범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상징구조의 한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²⁵⁾ 이 상징성에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 문화의 이상과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 다만 이를 건축으로 상징화하는 데는 문화권마다 특유한 표현방식이 있을 뿐이다.

또한 건축은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기 위한 행위 이전에 그 사회 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나 의미를 표현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정주체계는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며 살고 있는 사회, 문화구조와 연관된 경험적 실체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정주형태와 주거내용 속에 상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구조화되어 표현된다.²⁶⁾ 이를 두고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하며 거기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개념이 있고, 그것은 구조화되어 있다고 한다.²⁷⁾

IV.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축은 사람들에게 삶을 위한 은신처(shelter)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축의 발생이나 목적에 관한 정의는 건축하는 방법이나 정주체계의 해석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첫째는 은신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건축재료와 건축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찍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의 기후와 자연환경 조건속에서 이용 가능한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여왔다. 이는 건축재료와 건축기술은 어떤 의미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동물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구축 가능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사람들이 은신처를 만들 때 과연 건축재료와 건축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한 차원에서 자신들의 은신처를 만들어 살면서 흡족해 하였을까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부분이다. 그 은신처란 바로 사람들 자신들의 삶을 위한 은신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연관되는 내용이 그 속에 반영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측면은 우리가 건축하는 방법이나 정주체계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함께 생각하여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건축은 사람들의 삶을 위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건축재료와 구조기술적인 부분에만 한하여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건축형태와 연관된 건축의 아름다움, 즉 美的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이야기하게 된다. 동일한 구조방식이나 형태를 만드는 원리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방식,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문화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의 미는 이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내용과 관계지어 이야기되어야 한다. 같은 흙, 같은 목재, 같은 돌로 건축을 하더라도 문화역사의 배경에 따라 건축 구성방식이나 배치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는 건축의 보편성과 구별되는 건축의 특수성이다.

24) Christian Norberg-Schulz,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1980.

25) 모든 건축이 본질적으로 상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관한 내용은 특히 Suzanne Langer의 *Feeling and Form*, Mircea Eliade의 *The Sacred and the Profane* 등의 연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6) Amos Rapoport, "Symbolism and Environmental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logy*, 1970, vol. 1, n. 3, p. 8.

27) Mircea Eliade, 앞의 책.

따라서 건축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함도 중요하다. 특히 문화는 어느 특정 지역, 어느 특정 시대의 성원들의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에 총체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일련의 생활유형이나 적응수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들의 정주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즉 체득되고 전승받은 문화내용이 서로 다른 문화간에는 그 정주체계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물리적 공간은 소로킨(Pitrim Sorokin)이 말한 것 처럼 그것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분리되어 해석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구조물도 사회 가치체계와 공간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²⁸⁾. 문화에 관하여 오스구드(Cornelius Osgood)는 기술적인 차원(technical level), 사회적인 차원(societal level), 이념적인 차원(ideational level) 등 셋으로 나누어 이야기하는데, 문화의 기술적인 차원이란 생산과 연관된 물질적인 내용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건축에서는 기법에 속하는 부분이고, 사회적인 차원이란 사회적인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문화내용을 말하고, 이념적인 차원이란 하나의 이상으로 표상된 문화내용을 말한다²⁹⁾. 이와 연관하여 사람들이 정주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여 보면, 첫째는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차원, 둘째는 사회관습이나 제도, 즉 사회문화내용을 건축이라는 구조물이나 배치 구성에 반영시키는 차원, 셋째는 우주론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을 건축을 통하여 의미론적이며 상징적인 내용으로 구현하는 차원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주체계에 관한 논의

는 건축의 본질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는 이른바 「건축이론」에 관하여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건축의 본질과 정주체계에 관계되는 건축이론은 근대건축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미학론이나 공간론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건축 미학론이나 공간론은 건축문화 혹은 사람의 삶이라는 측면까지도 포함하여 건축기술과 형태를 해석할 때 참다운 의미의 건축 미학론이나 공간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이론이란 사회, 문화내용을 건축물이나 정주체계를 통하여 구성하게 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을 구조, 기술, 재료, 건설방법 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는가,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그 건축에서 「무엇」이 구현되는가,라는 건축의 내면적인 부분은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건축기술의 해결방법과 형태적인 특성이 어떻게 연관되었는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집을 짓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어떤 정주체계를 해석하기 위하여는 건축의 문화적인 속성과 연관시켜 그러한 것을 그렇게 만드는 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건축물을 짓는가에 대한 질문은 바로 사람들은 무엇을 건축물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구현하는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관건을 제공한다.

이와같이 건축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문화는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띤 지역의 그것과 구분되게 하는 전형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그들이 건축을 남과 다르게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는 서로 다른 세계관, 인식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의 정주체계는 서로 다른 건축 의미체계를 갖게 되고, 이는 서로 다른 상징적인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시 말하면 建築이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文化를 秩序體系를 갖춘 内容物로 表象化하는 틀을 만드는 作業이라고 할 수 있다.

28) Pitrim Sorokin, *Sociocultural Causality, Space, Time: A Study of Referential Principles of Sociology and Social Science*, New York: Russel and Russel, 1964.

29) Cornelius Osgood, *Ignalik Material Culture*, Yale University Press, 1940; Cornelius Osgood, *Ignalik Social Culture*, Yale University Press, 1958; Cornelius Osgood, *Ignalik Mental Culture*, Yale University Press, 1959.

A Cross-Cultural Study on Settlement and Dwelling System for a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e

Lee, Sang Hae

ABSTRACT

This study maintains that settlement and dwelling system reflects socio-cultural value of the people to express their image of ideal-life and intrinsic way of life. To demonstrate it, the study is conducted on a cross-cultural perspective. Through the study, it is shown that the character and content of the settlement and dwelling system is largely generated by the result of a choice among possible alternatives, which provides the theoretical base of the settlement and dwelling system.